

국제극예술협회(ITI)
세계공연예술기구



세계연극의 날 메시지 2026 년 3 월 27 일

메시지 작성자: 윌렘 데포, 미국
배우, 연극 제작자

한국어

세계연극의 날 메시지 2026 , 윌렘 데포

저는 영화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77 년부터 2003 년까지 우스터 그룹의 일원으로 뉴욕의 퍼포밍 개러지에서 연극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하며 전 세계를 순회 공연했습니다. 리처드 포먼, 로버트 윌슨, 로메오 카스텔루치와도 함께 작업했습니다. 현재는 베니스 연극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으로 있습니다. 이런 위상과 세계적인 작업 그리고 다시 연극무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연극만의 긍정적 힘과 소중함을 향한 저의 신념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극단 우스터 그룹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극장을 찾는 관객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출연진이 관객보다 많으면 공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의 구성원은 연극 전공자들보다, 연극을 하기 위해 모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목표로 삼기 보다, 관객과의 만남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무대를 지켜 나갔습니다.

낮에는 종종 리허설을 하고 저녁에는 진행 중인 작업의 내용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생계유지를 위해 한 작품만 여러 곳을 순회하며 수년 간 재공연을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한 작품만 몇 년을 해내야 하는 일은 지루하고 리허설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진행 중이라 해도 공연만큼은 항상 흥미진진했습니다. 비록 적은 관객 수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형편없었는 가를 말해주었지만 말입니다. 관객이 아무리 적더라도, 관객이라는 존재는 극장에 의미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의 간판에도 쓰여 있듯 "승리하려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악보와 디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다른 창작 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험은 분명 연극의 명백한 장점입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연극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새로운 기술과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연대를 보장하는 거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서로 단절 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일 컴퓨터를 켜고, 배우로서 제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고, 인공지능(AI)에게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접촉이 자칫 이런 기기와의 관계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소통의 매체 너머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는 뿌리 깊고, 진실과 현실에 대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인터넷은 질문을 건넬 수는 있지만, 연극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움을 담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연극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참여하며, 행동과 반응의 순환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이자 연극 제작자로서 저는 연극의 힘을 여전히 믿습니다. 점점 더 분열적이고, 통제적이며, 폭력 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연극 제작자로서 우리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연극이 단순히 오락을 위한 상업적 사업이나 전통을 보존하는 건조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과 공동체, 문화를 연결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극이란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깨우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생물학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각 기관은 그 만남의 통로이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큰 정의를 얻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미학, 언어, 움직임, 무대 디자인 등 의 총체적인 예술로서의 연극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의 과거 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